

명품 '강진산 햄쌀귀리' 올해 첫 수확 준비

내달 초 수확 시작... 오트밀·선식·고추장 등 가공식품 판매

강진산 햄쌀귀리가 6월 초 수확을 앞두고 따뜻한 햇살과 해풍으로 펴 렇게 익어가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강진군은 온난한 기후와 풍부한 일조량으로 최고 품질의 쌀귀리가 생산되는 곳이다. 현재 250농가, 900㏊에서 쌀귀리를 재배하고 있으며 6월 초부터 햄쌀귀리 수확이 시작된다.

군은 우수한 쌀귀리를 지역 대표 특산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을 등록하여 강진쌀귀리의 지적재산권을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부여 받았다.

특히, 올해 초 농식품부에서 공모

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전남에서 유일하게 강진쌀귀리 농촌 융복합산업지구가 최종 선정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한다.

쌀귀리 가공시설 구축, 공동 브랜드 개발, 제품 마케팅,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1,2,3차 산업이 융복합된 쌀귀리 지구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귀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단백질, 칼슘,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풍부하며, 베타글루칸 성분이 다량 함유돼 혈당과 혈액 플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하며,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져 있다.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아베난쓰라마이드 성분은 곡류 종 귀리에만 특이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 치매 예방효과,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쌀귀리는 훈밥용으로 쌀과 섞어 바로 씻어 밥을 지어먹으면 쫀득하며 톡톡 뛰는 식감이 일품이다. 더불어 강진군은 건강 가능성이 높은 쌀귀리를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오트밀, 선식, 고추장, 떡 등의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5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유미자 강진군수 권현대 행사는 "강진군은 쌀귀리 생육의 최적지로써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강진쌀귀리를 특화상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며, 쌀귀리를 활용한 다양한 가공상품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기반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진=한홍수 기자

진도군 조도면 정화활동
해양쓰레기 200여톤 수거



진도군 조도면이 바다의 날을 앞두고 하조도등대 해안가로 밀려든 해양쓰레기 정화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정화 운동은 지난 12일 조도면사무소 직원들과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임직원 60여명의 인력이 투입돼, 강풍과 파도에 떠밀려온 생활쓰레기, 폐어구, 폐스티로폼, 부표 등 각종 해양쓰레기 20여 톤을 수거·처리했다.

진도군 조도면 관계자는 "이번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쓰레기의 심각성과 바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조도면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해양 정화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해안가 경관 개선 모니터링과 해양 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환경지킴이를 운영 중이다. /진도=박재영 기자

영암 주민 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이달 말까지 신청 접수... 수강료 전액 무료

영암군은 2022 제2기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주도형 마을관광축제 전문가 양성 교육은 지역에 거주하며 축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무교육과 함께 조형특강, 현장 컨설팅을 추진해 축제 기획과 개발 실무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축제전문가 및 농촌관련학

과·관광관련학과 교수, 지역문화 전문가들이 전달하는 마을 관광 축제의 기본적인 이해와 운영사례 및 비교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론 및 실무 교육, 현장 교육, 토론 교육으로 진행한다.

수강생 모집은 관내 마을 관광 축제에 관심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 수강료는 전액 무료로 다음 달 6월 7일부터 운영되며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영암군 문화관광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접수하면 된다.

작년 제 1기 주민주도형 마을 관광 축제 전문가 양성 교육에는 31명이 배출되었으며 올해 수료생들과 함께 마을 관광 축제와 지역축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마을 관광 축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지역 인력 양성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위축 됐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축제의 차별화와 내실화로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영암=김형우 기자

완도 도서지역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 운영

위탁 의료기관·읍면 보건지소에서 당일 접종도 가능

방역 당국에서는 고령층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 60세 이상 연령층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완도군은 지난해부터 교통이 불편한 도서지역의 어르신들이 의료기관 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는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팀이 도서지역을 직접 찾아가 백신을 접종한다.

지난해까지 8개 무의 도서의 주민 441명이 접종을 했다.

올해는 지난 5월 3일 모도 보건진료소에서 38명, 11일 청산 보건지소에서 122명이 4차 백신을 접종했으며, 오는 18일과 19일에는 청산 서여도와 군위 사후도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 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를 통해 4차 백신을 접종할 주민은 총 370여 명으로 파악된다.

한편 5월 16일 기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률은 전남은 13.3%, 완도군은 19%이다.

4차 백신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완료하고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1962.12.31.이전 출생자)이며, 코로나19 확진자는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백신은 mRNA(화이자, 모더나) 또는 노바백스로 접종하며, 접종을 원하는 분은 사전 예약 없이 위탁 의료기관이나 읍면 보건지소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하다.

이 기석 완도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장은 "찾아가는 예방 접종 서비스는 도서 주민의 접근성을 위해 실시되고 있으니, 이번 기회에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무안, 양질의 사료작물 수확 '박차'

관내 조사료 경영체 23개 법인서 2174㏊ 규모

무안군은 값비싼 수입 사료 대체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관내 조사료 경영체 23개 법인에서 2174㏊ 규모의 조사료 수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료는 전체 사육비 중에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지만 최근 수입 사료 가격 급등과 물류 대란으로 인한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양질의 조사료를 농가에 공급하기 위해 군에서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과 사일리지제

조비로 39억 9000만 원을 지원해 고 품질 조사료 생산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경영체법인에 조사료 수확장비인 트랙터, 결속기, 예취기, 집초기 등에 9억 9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기계화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고품질 조사료 생산량 증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주병률 축산과장은 "조사료 재배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마을 경관보전에도 도움이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며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태연 기자

신안 퍼플섬 우회도로 개통식

관광수요 대응 교통인프라 구축 개선

신안군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안좌 반월·박지도 '퍼플섬'의 교통체증 해소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회도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총 사업비 21억원으로, 도로 연장 2.0km, 폭 4.0~6.0m 대형버스 정차 구간 5개소를 조성했다.

또한, LED 보행등 45개와 주주식 가로등 2개소 그리고 해안도로를 따라 보라색 배흘나루무(자금령) 3만 2천주를 설치해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신안=박정래 기자

해남 장난감도서관서 돌상·백일상 대여

행사의상도 대여품목 추가... 장난감 대여방식과 동일

해남군은 아이 탄생의 기쁨을 나누고, 양육 비용절감을 위해 장난감 도서관에 사진촬영용 돌상과 백일상, 행사의상을 비치하고 군민들에게 대여한다.

돌상과 백일상은 전통식과 현대식 각 2세트로, 세트 당 접이식 테이블, 테이블보, 돌잔이용 세트, 각종 모형 등 약 30개 구성품으로 이루어졌다.

아이가 착용하게 될 행사의상은 한복으로, 한복과 어우러지는 액세서리까지 같이 대여해 준다. 돌상·백일상 및 행사의상 대여는 장난감 대여 방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해남소통넷'을 이용하여 회원가입 후 장난감도서관에 방문해 연회비(개인 2만원, 단체 3만원)를 날부하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 다문화, 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두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은 연회비가 면제된다.

해남군 장난감도서관은 2020년 1월 개관 이후 현재 누적 회원 380여 명, 대여 횟수도 3,000건을 넘기면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장난감도서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해남=김동주 기자

90분의 기적

진도와 제주를 잇다

comming soon...

초쾌속카페리 "산타모니카"

2022년 5월 7일 취항!

· 총톤수 3500톤 · 속도 42노트 · 여객정원 606명 · 차량 86대

산타모니카 운항 시간표							
구분	진도출항	추자입항/출항	제주입항	제주출항	추자입항 / 출항	진도입항	선착
월 ~ 일	08:00	08:45 / 09:10	10:00	11:30		13:00	23번
	14:30		16:00	17:30	18:20 / 18:45	19:30	

*정기휴항: 첫번째, 세번째 수요일

